

《問奇集》 작가 및 聲類 계통 探析

李 春 永*

— <目 次 —

I. 前 言	III. 《問奇集》의 聲母
II. 《問奇集》의 작가 및 저작 의의	IV. 結 論

I. 前 言

중국 宋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遼나라가 침입하고 金나라가 북방을 점령하자, 南宋은 수도를 옮기고 백성들도 이동하게 된다. 이후, 元나라가 중원을 장악하여 이민족이 침입하게 되면서, 중국 도처에 종족과 언어가 섞이게 되었다. 이 때문에 宋 이후의 실제 언어에 큰 변화가 온다. 明나라가 개국하면서 太祖는 언어통일을 위하여 「中原雅音」에 의거하여 《洪武正韻》을 편찬하고 보급시키려고 노력한다¹⁾. 그러나 「平水韻」은 여전히 당시 과거장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었고, 심지어 《洪武正韻》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또한 金 韓道昭의 《五音集韻》도 계속 사용되어졌다²⁾. 민간에서도 당시의 언어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대량의 聲韻 저서들이 지어졌다. 그 중 《問奇集》은 대학자 張位가 讀書人의 공부에 참고가 되고자 지은 小學저서로써, 당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問奇集》의 가치는 이미 일부 학자들에게 인정되고 연구되었다. 즉,

* 臺灣 中國文化大學 中國文學研究所 博士班

1) 崔玲愛, <洪武正韻研究>(國立臺灣大學中文研究所博士論文, 1975.7), 37-40 쪽.
2) 耿振生, 《明清等韻學通論》(第一版; 北京: 語文出版社, 1992.9), 33 쪽

羅常培는 《問奇集》에 기록된 각 지방의 방언들을 소개하였고³⁾, 丁邦新은 《問奇集》에 기록된 방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⁴⁾. 또한 吳傑儒는 《問奇集》의 문자분야를 연구하였다⁵⁾. 그러나 세 학자의 연구 분야는 문자학과 方言에만 국한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問奇集》⁶⁾의 어음자료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張位는 《問奇集》에서 각 글자 아래 「某音某」·「某音某, 又音某」·「某 某某聲」⁷⁾의 「直音」형식으로 그音を 주 달고 있는데, 모두 1,357組 정도가 있다. 이 자료들은 張位가 자신의 발음으로 그音を 달고 있기에, 당시의 실제 어음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본고에서는 《問奇集》에 나타난 어음자료들을 《廣韻》⁸⁾ 41聲類로 분석하여 聲類계통을 파악하고, 그 속에 반영된 명나라 당시의 聲母특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問奇集》의 작가 및 저작 의의

《問奇集》의 작가에 대해서는 서문에 「豫章張位」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問雲館別編》⁹⁾의 明 萬曆丁酉(서기 1597年) 王命爵의 <序文>에

- 3) 羅常培, <漢語方音研究小史>, 《羅常培語言學論文選集》(台一版; 台北: 九思出版社, 1978.3), 142-156쪽.
- 4) 丁邦新, <問奇集所記之明代方音>, 《中央研究院成立五十周年紀念論文集》(1978.6), 577-592쪽.
- 5) 吳傑儒, 《異音別義之源起及其流變》, (國立台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碩士論文 1982.6), 140-146쪽.
- 6) 본 편은 《百部叢書集成·寶顏堂祕笈》18, (臺北市: 藝文印書館, 1965)에 수록된 「明萬曆繡水沈氏尙白齋刻寶顏堂祕笈本」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 7) 예를 들면, 「填音鎮」·「鄴音西, 又音妻」·「差, 此平聲」과 같다.
- 8) 陳彭年, 《新校正切宋本廣韻》(初版; 臺北市: 黎明文化事業公司 1976.9). 《廣韻》에 수록되지 않은 글자들은 宋 丁度의 《集韻》(初版; 臺北市: 學海出版社, 1986.11)과 金 韓道昭의 《校正五音集韻》(第一版; 北京: 中華書局 1992.9)을 근거로 한다.
- 9) 張位, 《問雲館別編》, 台灣國家圖書館 소장 「藏明萬曆二十五年清源刊本」. 《問雲館別編》에 《問奇集》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같은 작가의 작품임을

「洪陽張先生」이란 기록이 있다. 《四庫全書提要·問奇集一卷》에는 “明張位撰。位字明成，新建人”¹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問奇集》의 작가가 張位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明代傳記叢刊索引》¹¹⁾에서는 張位(名誠·名成·明成·文端·文莊) 과 張位(洪陽·豫章) 을 나누어 기록하고 있으며, 더구나 《問奇集》작가인 張位(洪陽·豫章) 에 대해서는 <皇明世說新語>의 “張位，號洪陽，亦稱豫章”¹²⁾의 기록만이 보인다. 필자는 2가지 이유에서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판단한다. 첫째, 《問奇集》서문에서 작가를 「豫章張位」이라 기록하였고, 또 다른 장위는 新建사람이며 南昌사람이다¹³⁾. 南昌縣의 연혁에 의하면 「江西新建」은 오늘날의 「江西南昌」이다¹⁴⁾. 또한, <南昌縣志>에 “남창은 예장의 중심읍이다. …… 본 읍은 혹 예장이라고도 하고, 중릉이라고도 하며, 혹은 옛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南昌爲豫章首邑，……本邑或稱豫章，或稱鍾陵，或仍舊名)”¹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新建과 豫章이 모두 한 지역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즉, 두 사람은 같은 지역 출신이다. 둘째, 《問奇集》서문에 작가는 「國子司業」을 지냈다고 기록한다. 즉, “國子司業에 제수 되어, 학생들이 점호하고 공부함에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 10) 張位, 《問奇集》, 《百部叢書集成·寶顏堂祕笈》18, (臺北市: 藝文印書館, 1965).
- 11) 周駿富집, 《明代傳記叢刊索引》(初版; 初版; 臺北市: 明文書局, 1991.10), 862 쪽.
- 12) 明 李紹文, <皇明世說新語>, 《明代傳記叢刊·學林類》(初版, 臺北市: 明文書局, 1991.1), 28 쪽.
- 13) 清 張廷玉등, <明史列傳>, 《明代傳記叢刊·綜錄類》(初版, 臺北市: 明文書局, 1991.1), 107쪽에 “張位, 字明成, 新建人”이라 하였고, 清 陳田, <明史紀事>, 《明代傳記叢刊·學林類》(初版; 臺北市: 明文書局, 1991.1), 5쪽에 “位, 字名成, 新建人”이라 하였다. 또한 清 朱竹垞, <靜志居詩話>, 《明代傳記叢刊·學林類》(初版; 臺北市: 明文書局, 1991.1), 411쪽에 “張位, 字名誠, 南昌人”이라 하였다.
- 14) <南昌縣志>, 《中國方志叢書·華中地方》83(臺一本, 臺北市: 成文出版社, 1989. 3), 「清乾隆十六年刊本」, 79-99 쪽.
- 15) <南昌縣志>, 《中國方志叢書·華中地方》83(臺一本, 臺北市: 成文出版社, 1989. 3), 「清乾隆十六年刊本」, 79 쪽.

보고, 이전의 제도에 따라 《洪武正韻》으로 가르쳤다(轉國子司業, 見諸生唱名陳牘, 往往不恥承訛, 因倣前制, 依《洪武正韻》教之)”고 하였다. 다른 張位도 「司業」을 지냈다. “당시 이미 侍講이 되어 있었으나, 南京司業에 제수되었다(時已遷侍講, 抑授南京司業)”라는 기록이 보인다¹⁶⁾. 두 사람 모두 國子司業의 관직을 지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을 근거로 필자는 《明代傳記叢刊索引》에서 나누어 기록된 두 張位가 모두 《問奇集》의 작가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판단한다.

張位의 字는 明成·名誠이며, 號는 洪陽이고, 豫章이라고도 하며, 江西省 新建(오늘날 江西省 南昌縣)사람이다¹⁷⁾. 明 隆慶2년 戊辰 서기 1568년에 진사에 급제하여, 南京司業·敎習庶吉士·東閣大學士·太子太保·文淵閣大學士·武英殿大學士를 지냈으며, 관직이 吏部尙書에까지 올랐다¹⁸⁾.

張位의 출생 및 卒年은 알 수 없지만, 기록들에 의하면 주로 隆慶·萬曆년간에 활동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현존하는 그의 저서로는 《發音錄》¹⁹⁾·《閒雲館別編》²⁰⁾·《張洪陽文集》²¹⁾·《張洪陽註解道德

- 16) 張廷玉 등, <明史列傳>, 《明代傳記叢刊·綜錄類》(初版, 臺北市: 明文書局, 1991.1), 107쪽.
- 17) 清 張廷玉 등, <明史列傳>, 《明代傳記叢刊·綜錄類》(初版, 臺北市: 明文書局, 1991.1), 107쪽에 “張位, 字明成, 新建人”이라 하였고, 清 陳田 <明史紀事>, 《明代傳記叢刊·學林類》(初版, 臺北市: 明文書局, 1991.1), 5쪽에 “位, 字名成, 新建人”이라 하였으며, 清 朱竹垞 <靜志居詩話>, 《明代傳記叢刊·學林類》(初版, 臺北市: 明文書局, 1991.1), 411쪽에 “張位, 字名誠, 南昌人”이라 하였다. 또한, 明 李紹文 <皇明世說新語>, 《明代傳記叢刊·學林類》(初版, 臺北市: 明文書局, 1991.1), 28쪽에 “張位, 號洪陽, 亦稱豫章”이라 하였다.
- 18) 清 張廷玉, <明史列傳>, 《明代傳記叢刊·綜錄類》(初版, 臺北市: 明文書局, 1991.1), 107-108쪽.
- 19) 張位, 《發音錄》, 《叢書集成續編》74. 책의 내용은 《問奇集》의 <假借圈發字音>부분이다.
- 20) 張位, 《閒雲館別編》, 臺灣國立中央圖書館에 「明萬歷二十五年清源刊本」이 소장되어 있다. 책 내용은 <經史格言>·<諸子格言>·<警心類編>·<問奇集>·<好生編>으로 이루어져 있다.
- 21) 張位, 《張洪陽文集》, 《皇明經世文編》25(臺南市: 國風出版社, 1964.12), 227-272쪽.

經》22)·《南華標略》23)등의 책이 있다.

《問奇集》의 정확한 저작 연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단지, 서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國子司業에 제수 되어 학생들이 집호하고 공부함에 종종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전의 제도에 따라 《洪武正韻》으로 가르쳤다. 낮에 몇 가지 글자를 익힘에 학생들이 나에게 질문을 하여도 일일이 모두 대답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이에, 여가 중에 예전에 들은 것들의 기억을 되살려 글로 써서 책으로 묶었다(轉國子司業, 見諸生唱名陳牘, 往往不恥承訛, 因倣前制, 依《洪武正韻》教之, 日習數字, 諸生中有問於我, 不便盡答也, 暇中回記憶舊聞, 筆札成帙.”

이 기록에 의하면, 張位가 國子司業에 제수 된 이후에 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張位는 일찍이 두 차례 國子司業의 직책을 맡았다. 첫째는 萬曆9年(서기 1581년)경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徐州同知」으로 강등되었다²⁴⁾. 두 번째는 萬曆11年(서기 1583년)에서 萬曆14年사이이다²⁵⁾. 오늘

22) 張位, 《張洪陽註解道德經》, 《道藏精華·玄宗內典》8(臺北市: 自由出版社, 1979. 7), 135쪽.

23) 臺灣國立中央圖書館에 「明萬曆間吳宗玄刊本」이 소장되어 있다.

24) 清 張廷玉등, <明史列傳>, 《明代傳記叢刊·綜錄類》(初版, 臺北市: 明文書局, 1991.1), 107쪽에 “南京司業에 제수되었다. 오래지 않아, 다시 京察로 인해 徐州同知로 강등되었다(授南京司業, 未行, 復以京察, 謫徐州同知)”고 하였고, <明史列傳·李巳傳>, 15쪽에서는 “9년 경찰에서는 張居正의 의향을 따라 발탁하고자 하였다. 尙書 何寬·司業에 제수된 張位·長史 趙世卿과 감찰하였다(九年京察, 希張居正指, 與尙書何寬·置司業張位·長史趙世卿察典)”라고 하였다. 京察이 萬曆 9년에 있었으며, 장위가 당시 司業에 제수되었지만, 「未行」이라는 기록을 볼 때, 제수되고 오래지 않아 徐州同知로 강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5) 清 張廷玉등, <明史列傳>, 《明代傳記叢刊·綜錄類》(初版, 臺北市: 明文書局, 1991.1), 107쪽에 “장거정이 죽은 다음해, ……(장위가) 南京尙寶丞로 진급하였다가, 홀연히 左中允이 되어 司業 일을 관장하였다. ……禮部侍郎·敎習庶吉士를 지내다가 병을 구실로 사임하였다(居正卒之明年, ……擢南京尙寶丞, 俄召爲左中允, 管司業事, ……以禮部侍郎, 敎習庶吉士, 引疾歸)”라고 하였다. 《明史·神宗本紀》(臺初版, 臺北市: 國防研究所, 1963.4), 138쪽 「明神宗萬曆十年」條에 “6월에 張居正이 죽었다(六月……張居正卒)”라고 하였으니, 장위가 萬曆1

날 보이는 판본도 萬曆년간의 판본이 있다²⁶⁾. 그러므로, 《問奇集》이 적어도 萬曆9년 이후의 萬曆년간에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서문에서 張位는 《問奇集》의 저작의의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일찍이 國子監에서 「國子司業」의 신분으로 《洪武正韻》을 가르쳤다. 張位가 또한 성운학 지식을 겸비한 학자였음을 알 수 있다.

Ⅲ. 《問奇集》의 聲母

《問奇集》에서는 「某音某」·「某音某, 又音某」·「某, 某某聲」의 直音형식으로 음을 주 달고 있는 1,357組 내외의 언어자료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 자료들을 《廣韻》의 41聲母로 분석하여, 《問奇集》의 聲類와 그 언어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聲母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脣音: 「幫」·「滂」·「明」·「非」

(1) 「幫」

《問奇集》直音 자료에서 「幫」母字가 들어가는 것은 모두 40組가 있으며, 그 중 「幫」母字를 「幫」母字로 주 단 것은 모두 32組가 있다. 예를 들

년에 南京尙寶丞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詞林典故》, 《四庫全書存目叢書·史部》258(初版 臺灣 莊嚴文化事業有限公司) 「北京圖書館藏明萬曆十四年張位刻本」의 萬曆14년 <序文>에 「會典 부총재 교습서길사 新建 張位가 本院의 瀛洲亭에서 쓰다(會典副總裁教習庶吉士新建張位書于本院之瀛洲亭)」라고 하였으니, 萬曆14년에 장위는 이미 教習庶吉士가 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위가 萬曆11년에서 14년 사이에 司業 일을 관장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26) 필자가 수집한 판본으로, 《百部叢書集成·寶顏堂秘笈》8(臺北市 藝文印書館 1965)에 수록된 「明萬曆繡水沈氏尙白齋刻寶顏堂秘笈本」과 《續修四庫全書·經部·小學類》238(第一版 上海市: 上海古籍出版社, 2002.3)에 수록된 「福建省圖書館藏明萬曆刻本」이 있다.

면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北音背	北：補妹切	幫	「幫」音「幫」
	背：補妹切	幫	
瀑音豹	瀑：北教切	幫	「幫」音「幫」
	豹：北教切	幫	
捩音擺	捩：北買切	幫	「幫」音「幫」
	擺：北買切	幫	

6組는 「並」母 仄聲字를 「幫」母字로 주 달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暴音卜	暴：蒲木切	並	「並」音「幫」
	卜：蒲木切	幫	
復音逼	復：符逼切	並	「並」音「幫」
	逼：彼側切	幫	
傍音謗	傍：蒲浪切	並	「並」音「幫」
	謗：補曠切	幫	

2組 「幅(滂)音璧(幫)」·「福(滂)音逼(幫)」: 같은 發聲部位의 혼동이다. 章太炎선생의 「古雙聲說」²⁷⁾에서와 같이 發聲部位의 음은 혼동하기 쉽다.

明代官話에서 全濁音「並」母는 全濁音이 清化되어, 平聲字는 送氣의 清音인 「滂」母에 합병되고, 仄聲字는 不送氣 清音인 「幫」母에 합병되었다²⁸⁾. 《問奇集》直音에서 「幫」母와 「並」母 仄聲字가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다. 그러므로, 《問奇集》의 「並」母 仄聲字가 「幫」母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7) 陳新雄, 《古音學發微》(初版 臺北市 文史哲 1996.10), 642-647 쪽

28) 丁鋒, 《疏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第一版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2), 57쪽.

(2) 「滂」

《問奇集》直音 자료에서 「滂」母字가 들어가는 것은 모두 21組가 있으며, 그 중 「滂」母字를 「滂」母字로 주 단 것은 모두 15組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叵音頗	叵：普火切	滂	「滂」音「滂」
	頗：普火切	滂	
肫音非	肫：敷尾切	滂	「滂」音「滂」
	非：敷尾切	滂	
番音潘	番：普官切	滂	「滂」音「滂」
	潘：普官切	滂	

2組는 「並」母 仄聲字를 「滂」母字로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²⁹⁾: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甃音劈	甃：扶歷切	並	「並」音「滂」
	劈：普擊切	滂	
拂音匹	拂：(薄必切)	並	「並」音「滂」
	匹：譬吉切	滂	

2組는 「並」母字가 「滂」母字를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頗音婆	頗：滂禾切	滂	「滂」音「並」
	婆：薄波切	並	
肫音孛	肫：滂佩切	滂	「滂」音「並」
	孛：蒲昧切	並	

2組: 같은 發聲部位의 혼동으로, 앞 「幫」母에서 이미 언급했다

위 표의 「肫」·「拂」·「甃」 세 組에서는 「並」母 仄聲字와 「滂」母字가 서

29) 표에서 《廣韻》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로 나타내어 《集韻》의 反切에 따르고, 《集韻》에도 수록하지 않은 것은 []로 표시하여 《五音集韻》의 反切에 근거한다. 이후의 표도 모두 같다.

로 주 달고 있다. 이는 明代官話의 濁音清化규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오늘날 南昌方言에서 重唇全濁音「並」母의 平·仄聲字가 모두 「滂」母에 합병하고 있다³⁰⁾. 방언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問奇集》의 「定」母 平聲字와 일부 仄聲字가 「滂」母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明」

《問奇集》直音에서 「明」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32組이며, 모두 「明」母字를 「明」母字로 주 달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沫音昧	沫：莫貝切	明	「明」音「明」
	昧：莫佩切	明	
鷺音木	鷺：莫卜切	明	「明」音「明」
	木：莫足切	明	
冒音墨	冒：莫北切	明	「明」音「明」
	墨：莫北切	明	

(4) 「非」

《問奇集》直音에서 「非」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11組이며, 그 중에서 「非」母字를 「非」母字로 주 단 것은 7組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父音甫	父：方主切	非	「非」音「非」
	甫：方主切	非	
放音倣	放：分网切	非	「非」音「非」
	倣：分网切	非	
夫音扶	夫：甫于切	非	「非」音「非」
	扶：甫于切	非	

1組는 「敷」母字를 「非」母字로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30) 楊時逢, <南昌音系>, 《歷史語言研究所集刊》39(1969.1), 186-188 쪽 이후의 오늘날 南昌方言은 모두 이 책에 같은 쪽수에 따른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贈音諷	贈：撫鳳切	敷	「敷」音「非」
	諷：方鳳切	非	

1組는 「敷」母字가 「非」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泛音捧	泛：(方勇切)	非	「非」音「敷」
	捧：敷奉切	敷	

1組는 「奉」母字를 「非」母字로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飯音反	飯：扶晚切	奉	「奉」音「非」
	反：府遠切	非	

1組는 「奉」母字가 「非」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否音浮	否：方久切	非	「非」音「奉」
	浮：縛謀切	奉	

이 밖에도, 「敷」母字가 「奉」母字의 음을 주 단 1組와 「奉」母字가 「敷」母字의 음을 주 단 1組가 보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隄音斐	隄：浮鬼切	奉	「奉」音「敷」
	斐：敷尾切	敷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鄜音夫	鄜：芳無切	敷	「敷」音「奉」
	夫：芳無切	奉	

明代官話에서 「敷」母가 「非」母와 합병하고, 全濁音「奉」母도 清化되어 그 중에 합병된다³¹⁾. 이러한 현상은 元 周德清《中原音韻》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中原音韻》에서 이 세 聲母는 ㄈ : 風·豐·馮·番·反·飯,³²⁾

로 이미 합병되고 있다. 《問奇集》直音에서 이 세 聲母는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다. 그러므로, 「敷」·「奉」 두 聲母가 「非」母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舌音: 「端」·「透」·「泥」

(1) 「端」

《問奇集》直音에서 「端」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39組이며, 그 중에 「端」母字를 「端」母字로 주 달고 있는 것은 29組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禪音丹	禪：都寒切	端	「端」音「端」
	丹：都寒切	端	
蒂音帝	蒂：都計切	端	「端」音「端」
	帝：都計切	端	
陡音斗	陡：當口切	端	「端」音「端」
	斗：當口切	端	

9組는 「定」母 仄聲字를 「端」母字로 주 달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毒音篤	毒：徒沃切	定	「定」音「端」
	篤：冬毒切	端	
簞音玷	簞：徒玷切	定	「定」音「端」
	玷：多忝切	端	
轟音到	轟：徒到切	定	「定」音「端」
	到：都導切	端	

1組는 「定」母 仄聲字가 「端」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31) 丁鋒, 《疏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第一版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2), 220쪽.

32) 陳新雄, 《新編中原音韻概要》(初版; 臺北縣: 學海出版社, 12001.5), 24쪽.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禡音兌	禡：丁外切	端	「端」音「定」
	兌：杜外切	定	

明代官話에서 全濁音「定」母는 이미 平仄에 따라 「端」·「透」母에 합병되었다. 즉, 「定」母 平聲字는 送氣清音인 「透」母에 합병되고 仄聲字는 不送氣清音인 「端」母에 합병되었다. 《問奇集》에서 「端」母字와 「定」母 仄聲字가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다. 그러므로, 全濁音「定」母 仄聲字가 「端」母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透」

《問奇集》直音 중에서 「透」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35組이며, 그 중 「透」母字를 「透」母字로 주 달고 있는 것은 31組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滔音韜	滔：土刀切	透	「透」音「透」
	韜：土刀切	透	
墮音隋	墮：他果切	透	「透」音「透」
	隋：他果切	透	
帑音儻	帑：他朗切	透	「透」音「透」
	儻：他朗切	透	

4組는 「定」母 仄聲字를 「透」母字로 주 달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澤音托	澤：徒落切	定	「定」音「透」
	托：[他各切]	透	
宕音蕩	宕：徒浪切	定	「定」音「透」
	蕩：他浪切	透	
度音托	度：徒落切	定	「定」音「透」
	托：(闕各切)	透	
給音態	給：徒亥切	定	「定」音「透」
	態：他代切	透	

표에서 「澤」·「宕」·「度」세組는 「定」母 仄聲字와 「透」母字가 서로 음을 주 단 경우로, 明代官話의 濁音清化규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오늘날 南昌方言에서 重唇全濁音 「定」母 平·仄聲字가 모두 「透」母와 합병되고 있다. 방언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問奇集》直音에는 「定」母 平聲字와 「透」母가 서로 주를 단 경우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定」母 仄聲字가 「端」母와 서로 주를 달고 있고, 또한 明代官話에서 「定」母 平聲字는 「透」母에 합병되었다. 이에 《問奇集》의 「定」母 平聲字가 「透」母에 합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問奇集》의 全濁音「定」母 平聲字와 일부 仄聲字가 「透」母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泥」

《問奇集》直音에서 「泥」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16組이며, 그 중 「泥」母字를 「泥」母字로 주 달고 있는 것은 11組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訥音訥	訥：內骨切	泥	「泥」音「泥」
	訥：內骨切	泥	
怒音溺	怒：奴歷切	泥	「泥」音「泥」
	溺：奴歷切	泥	
耐音能	耐：奴代切	泥	「泥」音「泥」
	能：奴代切	泥	

1組는 「娘」母字를 「泥」母字로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尼音溺	尼：尼質切	娘	「娘」音「泥」
	溺：奴歷切	泥	

1組는 「娘」母字로 「泥」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斂音躡	斂：奴協切	泥	「泥」音「娘」
	躡：尼輒切	娘	

2組는 「疑」母 開口三等字를 「泥」母字로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開合等第	聲類	備註
擬音佞	擬:牛饅切(開三)	疑	「疑」音「泥」
	佞:乃定切	泥	
擬音凜	擬:牛饅切(開三)	疑	「疑」音「泥」
	凜:乃定切	泥	

1組는 「疑」母 開口三等字가 「泥」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開合等第	聲類	備註
尿音擬	尿:奴弔切	泥	「泥」音「疑」
	擬:魚紀切(開三)	疑	

이 외에도, 「娘」母字가 「疑」母 開口三等字의 음을 주 단 1組가 보인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開合等第	聲類	備註
仰音釀	仰:魚向切(開三)	疑	「疑」音「娘」
	釀:女亮切	娘	

明代官話에서 「娘」母는 「泥」母와 합병하였다³³⁾. 이러한 현상은 元 周德清《中原音韻》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中原音韻》에서 「泥」·「娘」두 聲母는 「n: 膿·濃·難」³⁴⁾으로 합병되었고, 明代 《洪武正韻》에서도 「娘」母가 「泥」母에 합병되고 있다³⁵⁾. 이 밖에 漢語 聲母의 변천에서 「疑」母의 일부 開口三等字가 「泥」·「娘」의 두 聲母와 함께 「n」의 음으로 읽힌다³⁶⁾. 《問奇集》에서 「泥」·「娘」·「疑」(일부 開口三等字)가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다. 그러므로 《問奇集》의 「娘」와 「疑」母의 일부 開口三等字가 이미 「泥」母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丁鋒, 《疏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第一版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2), 220쪽.

34) 陳新雄, 《新編中原音韻概要》(初版 臺北縣 學海出版社, 2001.5), 24쪽.

35) 崔玲愛, 《洪武正韻研究》, (台灣大學中國文學研究所博士論文 1975.7), 57쪽.

36) 林慶勳·竺家寧, 《古音學入門》(初版 臺北市 臺灣學生書局 1989.7), 131쪽.

3. 齒音: (1).「精」·「清」·「心」
 (2).「照」·「穿」·「審」

(1) 「精」·「清」·「心」

① 「精」

《問奇集》直音에서 「精」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51組이며 그 중에 「精」母字를 「精」母字로 주 단 것은 모두 44組이다.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薦音箭	薦：作甸切	精	「精」音「精」
	箭：子賤切	精	
訾音咨	訾：卽移切	精	「精」音「精」
	咨：卽夷切	精	
氏音精	氏：子盈切	精	「精」音「精」
	精：子盈切	精	

3組는 「從」母 仄聲字를 「精」母字로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裁音再	裁：昨代切	從	「從」音「精」
	再：作代切	精	
藉音借	藉：慈夜切	從	「從」音「精」
	借：子夜切	精	
藏音葬	藏：徂浪切	從	「從」音「精」
	葬：則浪切	精	

1組는 「從」母 仄聲字가 「精」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帀音雜	帀：子荅切	精	「精」音「從」
	雜：徂荅切	從	

3組:「祭(精) 音菜(清)」·「擻(精) 音忽(清)」·「擻(清) 音宗(精)」; 같은 發聲部位의 혼동이다.

明代官話에서 全濁音「從」母字는 平仄에 따라 「精」·「清」母에 합병되었다. 《問奇集》直音에서 「精」母와 「從」母 仄聲字가 서로 주를 달고 있다. 그러므로, 「從」母 仄聲字가 「精」母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清」

《問奇集》直音에서 「清」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33組이며, 그 중 中「清」母字를 「清」母字로 주 단 것은 28組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錯音措	錯：倉故切	清	「清」音「清」
	措：倉故切	清	
切音砌	切：七計切	清	「清」音「清」
	砌：七計切	清	
碯音鵲	碯：七雀切	清	「清」音「清」
	鵲：七雀切	清	

1組는 「從」母 仄聲字를 「清」母字로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靚音倩	靚：疾政切	從	「從」音「清」
	倩：七政切	清	

3組: 같은 發聲部位인 「精」母와의 혼동으로, 위의 「精」母에서 이미 언급했다.

1組: 「倉(清) 音桑(心)」: 같은 發聲部位的 혼동이다.

明代官話에서 全濁音「從」母는 平仄에 따라 「精」·「清」에 합병되었다. 위 표의 「靚」은 「從」母 仄聲字를 「清」母字로 주 단 것으로, 明代官話의 濁音清化규칙에 위배된다. 오늘날 南昌方言에서 重唇全濁音「從」母 平·仄聲字가 모두 「清」母에 병합되고 있다. 그러므로 方言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問奇集》直音에서 「從」母 平聲字와 「精」·「清」母字가 서로 주를 단 상황은 나타나지 않지만, 《問奇集》「從」母 仄聲字가 「精」母字와 주를

달고 있고, 또한 明代官話에서 「從」母 平聲字가 「清」母에 합병되고 있다. 이에, 《問奇集》의 「從」母 平聲字가 「清」母에 합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問奇集》에서 「從」母 平聲字와 일부 仄聲字가 「清」母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心」

《問奇集》直音에서 「心」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53組이며, 그 중 中「心」母字를 「心」母字로 주 단 것은 47組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撕音西	撕：先稽切	心	「心」音「心」
	西：先稽切	心	
鮮音仙	鮮：相然切	心	「心」音「心」
	仙：相然切	心	
狻音酸	狻：素官切	心	「心」音「心」
	酸：素官切	心	

2組는 「邪」母字를 「心」母字로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羨音線	羨：似面切	邪	「邪」音「心」
	線：私箭切	心	
汜音泗	汜：詳里切	邪	「邪」音「心」
	泗：息利切	心	

2組는 「邪」母字가 「心」母字의 음을 주 달았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四音似	四：息利切	心	「心」音「邪」
	似：詳里切	邪	
蜥音席	蜥：先擊切	心	「心」音「邪」
	席：祥易切	邪	

2組: 「倉(清) 音桑(心)」·「蕈(從) 音信(心)」: 같은 發聲部位의 혼동이다. 漢語 聲母 변천에서 全濁音「邪」母는 「心」母에 합병된다. 《問奇集》에

서 「心」母字가 「邪」母字와 서로 주 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問奇集》의 聲類에서 「邪」母가 「心」母에 합병된 것을 알 수 있다.

(2) 「照」·「穿」·「審」

① 「照」

《問奇集》直音에서 「照」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39組이며, 그 중 「照」母字를 「照」母字로 주 단 것은 23組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祗音支	祗：章移切	照	「照」音「照」
	支：章移切	照	
底音指	底：職雉切	照	「照」音「照」
	指：職雉切	照	
衍音勻	衍：之若切	照	「照」音「照」
	勻：之若切	照	

5組는 「知」母字를 「照」母字로 주 달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蓋音周	蓋：張流切	知	「知」音「照」
	周：職流切	照	
壽音周	壽：張流切	知	「知」音「照」
	周：職流切	照	
著音酌	著：張略切	知	「知」音「照」
	酌：之若切	照	

3組는 「知」母字가 「照」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衆音中	衆：職戎切	照	「照」音「知」
	中：陟弓切	知	
屬音竹	屬：之欲切	照	「照」音「知」
	竹：張六切	知	
枕音鎮	枕：章荏切	照	「照」音「知」
	鎮：陟鄰切	知	

1組는 「莊」母字를 「照」母字로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淄音脂	淄：側持切	莊	「莊」音「照」
	脂：旨夷切	照	

2組는 「澄」仄聲字를 「照」母字로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豸音止	豸：池爾切	澄	「澄」音「照」
	止：諸市切	照	
峙音止	峙：直里切	澄	「澄」音「照」
	止：諸市切	照	

1組는 「澄」母 仄聲字가 「照」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枕音朕	枕：之任切	照	「照」音「澄」
	朕：直稔切	澄	

2組：「爍(審)音灼(照)」·「疢(審)音占(照)」

1組：「讐(照)音涉(禪)」

1組：「袤(穿)音攀(照)」; 모두 같은 發聲部位의 혼동이다.

그밖에도, 「莊」母字가 「知」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는 2組가 보인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磔音責	磔：陟格切	知	「知」音「莊」
	責：側革切	莊	
丁音爭	丁：中莖切	知	「知」音「莊」
	爭：側莖切	莊	

위의 내용에서 《問奇集》의 「莊」·「照」·「知」 세 聲母가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國語의 捲舌音은 41성모의 「知」·「莊」·「照」系에서 변해 온 음이다. 明나라 蘭茂《韻略易通》의 <早梅詩>에서는 이미 이 3

系の 聲母를 나누지 않고 있다. 이로써 15世紀 경에 3系 聲母가 모두 捲舌音으로 변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³⁷⁾. 《問奇集》도 당시 官話의 영향을 받아 「莊」·「照」·「知」 세 聲母가 합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澄」母 仄聲字와 「照」母字가 서로 주를 달고 있다. 이는 「澄」母 仄聲字가 《問奇集》에서 「照」母에 합병되었음을 나타낸다. 《問奇集》直音에는 「床」母 仄聲字와 「照」·「莊」母字가 서로 음을 주 다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床」母 平聲字와 「初」母 平聲字가 서로 주를 달고 있고, 明代官話에서 全濁音「床」母 仄聲字는 「照」·「莊」母에 합병되었기 때문에, 《問奇集》에서 「床」母 仄聲字가 「莊」·「照」母와 합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問奇集》에서 「莊」·「照」·「知」 세 성모가 합병되고, 全濁音「床」·「澄」의 仄聲字도 그 중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穿」

《問奇集》直音 중에서 「穿」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9組이며, 그 중 「穿」母字를 「穿」母字로 주 달고 있는 것은 1組이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僻音釧	僻：(樞絹切)	穿	「穿」音「穿」
	釧：尺絹切	穿	

5組는 「徹」母字를 「穿」母字로 주 달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扶音叱	扶：丑栗切	徹	「徹」音「穿」
	叱：昌栗切	穿	
葳音闌	葳：丑善切	徹	「徹」音「穿」
	闌：昌善切	穿	
偵音稱	偵：丑鄭切	徹	「徹」音「穿」
	稱：昌孕切	穿	

37) 王傳德, 《漢語史》(第1版, 濟南市 濟南出版社 1996.4), 42 쪽

2組는 「徹」母字가 「穿」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擘音抽	擘: 赤周切	穿	「穿」音「徹」
	抽: 丑鳩切	徹	
倡音悵	倡: 尺亮切	穿	「穿」音「徹」
	悵: 丑亮切	徹	

1組: 「衮(穿) 音摯(照)」: 같은 發聲部位의 혼동이다.

이 밖에도, 「穿」母와 서로 음을 주 단 「徹」母가 「初」·「澄」仄聲字와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初」母字가 「徹」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는 2組가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悤音錚	悤: 丑庚切	徹	「徹」音「初」
	錚: 楚耕切	初	
蠶音瘥	蠶: 丑轄切	徹	「徹」音「初」
	瘥: 楚懈切	初	

「澄」仄聲字가 「徹」母를 주 달고 있는 것이 2組가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彳音躑	彳: 丑亦切	徹	「徹」音「澄」
	躑: 直炙切	澄	
孛音躑	孛: 丑玉切	徹	「徹」音「澄」
	躑: 直錄切	澄	

「徹」母字가 「澄」仄聲字의 음을 주 달고 있는 1組가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鳩音疚	鳩: 直禁切	澄	「澄」音「徹」
	疚: 丑刃切	徹	

이 밖에도, 「徹」母字와 서로 음을 주 단 「初」母字가 또한 「床」母 平聲

字와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床」母 平聲字가 「初」母字의 음을 주 단 것은 2組가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槍音崢	槍：楚庚切	初	「初」音「床」
	崢：助庚切	床	
差音槎	差：初牙切	初	「初」音「床」
	槎：鉏加切	床	

또한, 「澄」母字도 「初」·「神」母字와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初」母字가 「床」母 平聲字의 음을 주 단 것은 1組가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柴音差	柴：士佳切	床	「床」音「初」
	差：楚佳切	初	

「神」母 平聲字가 「澄」母 平聲字의 음을 주 단 것은 1組가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傳音船	傳：直攀切	澄	「澄」音「神」
	船：食川切	神	

그 외에도, 「神」母字가 「禪」母字의 음을 주 단 것이 1組가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余音蛇	余：視遮切	禪	「禪」音「神」
	蛇：食遮切	神	

위에서 서술한 내용으로 《問奇集》에서 「穿」·「初」·「徹」세 聲母가 합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 성모는 오늘날 國語 捲舌音의 한 근원으로 明蘭茂《韻略易通》〈早梅詩〉에서 이미 서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세 성모가 15世紀 경에 모두 捲舌音으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⁸⁾. 《問奇集》의 세 성모의 합병은 당시 官話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자료에서 全濁音「床」·「神」·「禪」·「澄」의 平聲字도 「穿」·「初」·「徹」 세 聲母에 합병되고 있음도 보인다.

그밖에, 앞 페이지 「『澄』母字와 『徹』母字의 互注」를 나타내는 두 표의 「彳」·「亍」·「鳩」의 세 組는 모두 「澄」母 仄聲字와 「徹」母字가 서로 주 단 것으로, 이는 明代官話의 濁音清化규칙에 위배된다. 오늘날 南昌方言에서 重唇全濁音「澄」母字 (遇攝合口三等 제외) 가 「徹」母와 합병하고 있다. 「彳」·「亍」·「鳩」3組는 바로 「澄」母 (遇攝合口三等 제외) 仄聲字와 「徹」母字가 서로 주 단 경우로, 方音의 影響을 받은 흔적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問奇集》에서 「穿」·「初」·「徹」세 성모가 합병하였고, 全濁音「床」·「神」·「禪」·「澄」母의 平聲字와 「澄」母의 일부 仄聲字도 그 중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審」

《問奇集》直音에서 「審」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28組이며, 그 중에서 「審」母字를 「審」母字로 주 달고 있는 것은 14組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陝音閃	陝：失冉切	審	「審」音「審」
	閃：失冉切	審	
戍音庶	戍：傷遇切	審	「審」音「審」
	庶：商署切	審	
勝音昇	勝：識蒸切	審	「審」音「審」
	昇：識蒸切	審	

4組는 「禪」母字를 「審」母字로 주 달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38) 王傳德, 《漢語史》(第1版 濟南市 濟南出版社 1996.4), 42 쪽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蜃音晒	蜃：時忍切	禪	「禪」音「審」
	晒：式忍切	審	
脈音晒	脈：時忍切	禪	「禪」音「審」
	晒：式忍切	審	
上音賞	上：時掌切	禪	「禪」音「審」
	賞：書兩切	審	

5組는 「禪」母字가 「審」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葉音涉	葉：書涉切	審	「審」音「禪」
	涉：時攝切	禪	
餉音上	餉：式亮切	審	「審」音「禪」
	上：時亮切	禪	
少音邵	少：失照切	審	「審」音「禪」
	邵：寔照切	禪	

3組는 「神」母字를 「審」母字로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崦音勝	崦：實證切	神	「神」音「審」
	勝：詩證切	審	
贍音勝	贍：實證切	神	「神」音「審」
	勝：詩證切	審	
乘音勝	乘：實證切	神	「神」音「審」
	勝：詩證切	審	

2組：「爍（審）音灼（照）」·「店（審）音占（照）」：같은 發聲部位의 혼동이다.

이 밖에도 「審」母字와 음을 주 단 「禪」母字가 「疏」母字의 음을 주 단 1組가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使音恃	使：疏吏切	疏	「疏」音「禪」
	恃：(時吏切)	禪	

漢語 聲母 변천에서 「審」·「疏」·「神」(일부 平聲字제외)·「禪」(일부 平聲字제외)는 합병된다³⁹⁾. 《問奇集》直音에서 「審」·「疏」·「禪」(일부 平聲字제외)·「神」(일부 平聲字제외)의 네 聲母가 서로 주를 달고 있다. 그러므로, 《問奇集》聲類에서 네 聲母가 이미 합병했음을 알 수 있다.

4. 牙音: 「見」·「溪」

(1) 「見」

《問奇集》直音에서 「見」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124組이며, 그 중 「見」母字를 「見」母字로 주 달고 있는 것은 119組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亟音激	亟：紀力切	見	「見」音「見」
	激：古力切	見	
裸音灌	裸：古玩切	見	「見」音「見」
	灌：古玩切	見	
閣音各	閣：古落切	見	「見」音「見」
	各：古落切	見	

3組는 「群」母 仄聲字를 「見」母字로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39) 林慶勳·竺家寧, 《古音學入門》(初版, 臺北市, 臺灣學生書局, 1989.7), 129쪽.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具音句	具：其遇切	群	「群」音「見」
	句：九遇切	見	
澆音襪	澆：其兩切	群	「群」音「見」
	襪：居兩切	見	
謹音誑	謹：渠放切	群	「群」音「見」
	誑：居況切	見	

2組：「搗(溪)音訐(見)」·「度(見)音綺(溪)」: 같은 發聲部位의 혼동이다.

明代官話에서 全濁聲「群」母는 이미 平仄에 따라 「見」·「溪」母에 합병된다. 《問奇集》直音에서 「見」母字와 「群」母 仄聲字가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다. 그러므로 《問奇集》에서 全濁音「群」母 仄聲字가 「見」母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溪」

《問奇集》直音에서 「溪」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35組이며, 그 중 「溪」母字를 「溪」母字로 주 달고 있는 것은 31組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騫音掀	騫：虛言切	溪	「溪」音「溪」
	掀：虛言切	溪	
闕音缺	闕：苦穴切	溪	「溪」音「溪」
	缺：苦穴切	溪	
苛音可	苛：枯我切	溪	「溪」音「溪」
	可：枯我切	溪	

1組는 「群」母 平聲字를 「溪」母字로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邛音穹	邛：渠容切	群	「群」音「溪」
	穹：去宮切	溪	

1組는 「群」母 仄聲字가 「溪」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惆音桀	惆：苦蓋切	溪	「溪」音「群」
	桀：渠列切	群	

2組:「揭(溪)音訐(見)」·「度(見)音綺(溪)」; 같은 發聲部位의 혼동이다.

明代官話에서 全濁聲「群」母字는 平仄에 따라 「見」·「溪」母에 합병된다. 《問奇集》直音에서 「溪」母字와 「群」母 平聲字가 서로 주를 달고 있다. 그러므로, 「群」母 平聲字가 「見」母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표 중에 「惆」組에서는 「群」母 仄聲字로 「溪」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이것은 明代官話의 濁音清化규칙에 위배된다. 오늘날 南昌方言에서 全濁音 「群」母 開口三等字의 平仄이 모두 「溪」母에 합병되고 있다. 「惆」組는 「群」母 開口三等仄聲字가 「溪」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方言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問奇集》의 「群」母 平聲字와 일부 仄聲字가 「溪」母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喉音: 「曉」·「匣」

(1) 「曉」

《問奇集》直音에서 「曉」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47組이며, 그 중에서 「曉」母字를 「曉」母字로 주 단 것은 32組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盲音荒	盲：呼光切	曉	「曉」音「曉」
	荒：呼光切	曉	
祆音軒	祆：呼煙切	曉	「曉」音「曉」
	軒：虛言切	曉	
係音希	係：香衣切	曉	「曉」音「曉」
	希：香衣切	曉	

6組는 「曉」母字를 「匣」母字로 주 달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禡音戶	禡: 況羽切	曉	「曉」音「匣」
	戶: 侯古切	匣	
喙音惠	喙: 許穢切	曉	「曉」音「匣」
	惠: 胡桂切	匣	
罇音夏	罇: 呼訝切	曉	「曉」音「匣」
	夏: 胡駕切	匣	

9組는 「曉」母字가 「匣」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沼音罕	沼: 胡感切	匣	「匣」音「曉」
	罕: 呼旱切	曉	
穴音血	穴: 胡決切	匣	「匣」音「曉」
	血: 呼決切	曉	
峴音顯	峴: 胡典切	匣	「匣」音「曉」
	顯: 呼典切	曉	

漢語 聲母의 변천에서 「匣」母는 清音「曉」母에 합병된다. 《問奇集》에서 「曉」母字가 「匣」母字가 서로 주를 달고 있다. 그러므로, 全濁音「匣」母가 「曉」母에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喻」

《問奇集》直音에서 「喻」母字가 있는 것은 모두 84組이고, 그 중 「喻」母字를 「喻」母字로 주 단 것은 66組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瑤音遙	瑤: 餘昭切	喻	「喻」音「喻」
	遙: 餘昭切	喻	
佯音揚	佯: 與章切	喻	「喻」音「喻」
	揚: 與章切	喻	
余音餘	余: 以諸切	喻	「喻」音「喻」
	餘: 以諸切	喻	

4組는 「影」母字를 「喻」母字로 주 달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郾音演	郾：於轄切	影	「影」音「喻」
	演：以淺切	喻	
尉音役	尉：於胃切	影	「影」音「喻」
	役：營隻切	喻	
雍音用	雍：於用切	影	「影」音「喻」
	用：余頌切	喻	

11組는 「影」母字가 「喻」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羨音嚙	羨：予線切	喻	「喻」音「影」
	嚙：於甸切	影	
穎音影	穎：餘頃切	喻	「喻」音「影」
	影：於丙切	影	
射音益	射：羊益切	喻	「喻」音「影」
	益：伊昔切	影	

1組는 「疑」母字를 「喻」母字로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樂音耀	樂：五教切	疑	「疑」音「喻」
	耀：弋照切	喻	

1組는 「爲」母字가 「喻」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廡音羽	廡：以主切	喻	「喻」音「爲」
	羽：王矩切	爲	

1組는 「疑」母字가 「喻」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勤音義	勤：羊至切	喻	「喻」音「疑」
	義：宜寄切	疑	

이 밖에도, 《問奇集》直音에서 「影」·「爲」·「微」·「疑」의 네 聲母가 서로 주를 달고 있는 12組가 보인다. 다음과 같다

4組는 「疑」母字가 「影」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毆音偶	毆：烏后切	影	「影」音「疑」
	偶：五口切	疑	
膾音兀	膾：烏沒切	影	「影」音「疑」
	兀：五忽切	疑	
旖音蟻	旖：於綺切	影	「影」音「疑」
	蟻：魚倚切	疑	

2組는 「影」母字가 「疑」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睚音愛	睚：五懈切	疑	「疑」音「影」
	愛：烏代切	影	
虬音要	虬：牛召切	疑	「疑」音「影」
	要：於笑切	影	

3組는 「爲」母字가 「影」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雍音詠	雍：於用切	影	「影」音「爲」
	詠：爲命切	爲	
惲音運	惲：於粉切	影	「影」音「爲」
	運：王問切	爲	
恚音謂	恚：於避切	影	「影」音「爲」
	謂：于貴切	爲	

4組는 「影」母字가 「爲」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遠音委	遠：韋委切	爲	「爲」音「影」
	委：於詭切	影	
援音怨	援：王眷切	爲	「爲」音「影」
	怨：於願切	影	
羨音宴	羨：于線切	爲	「爲」音「影」
	宴：於甸切	影	

1組는 「爲」母字가 「微」母字의 음을 주 달고 있다.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忘音旺	忘：巫放切	微	「微」音「爲」
	旺：于放切	爲	

漢語 聲母의 변천 中에서 일부 聲母가 소실되어 零聲母로 변한다. 오늘날 國語 零聲母의 근원에는 《廣韻》41 聲類의 「影」·「喻」·「爲」·「微」의 네 聲母 외에도, 일부 「疑」母字와 「日」母字가 해당된다. 일부 「疑」母와 「日」母는 조건적으로 零聲母로 변한다. 즉, 「疑」母는 일부 開口三等字(40)를 제외한 글자가 零聲母로 변하고, 「日」母는 止攝開口字가 零聲母로 변한다(41). 36字母에서 「喻」母와 「爲」母가 이미 합병하였고, 宋代 《九經直音》에서 「喻」·「影」·「疑」세 聲母가 零聲母의 범위에 포함된다(42). 明代 《洪武正韻》에 이르면, 「喻」·「疑」·「微」·「影」母가 서로 反切上字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43). 《問奇集》直音에서 「喻」·「影」·「爲」·「微」·「疑」 일부

40) 林慶勳·竺家寧, 《古音學入門》(初版, 臺北市: 臺灣學生書局, 1989.7), 131-132쪽에서는 「疑」母 開細三等字는 「n」음으로 변하고, 「疑」母 開細三等字의 글자가 零聲母로 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論明代零聲母化現象>에서 실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 開細三等字도 대부분 글자가 零聲母로 변하고, 소수의 일부만만이 오늘날 「n」음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었다.

41) 林慶勳·竺家寧, 《古音學入門》(初版, 臺北市: 臺灣學生書局, 1989.7), 132쪽.

42) 竺家寧, <近代漢語零聲母의 形成>, 《近代音論集》(初版, 臺北市, 1994.8), 134-135쪽.

43) 崔玲愛, 《洪武正韻研究》(台灣大學中國文學研究所博士論文, 1975.7), 75-81쪽.

開口三等字제외)의 다섯 聲母가 서로 주를 달고 있다. 「影」·「爲」·「微」·「疑(일부 開口三等字제외)」의 성모가 소실되어 「喻」와 함께 零聲母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半舌音: 「來」

《問奇集》直音에서 「來」母字가 있는 것은 82組이며 모두 「來」母字를 「來」母字로 주 달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裸音灌	裸: 郎果切	來	「來」音「來」
	灌: 郎果切	來	
角音祿	角: 盧谷切	來	「來」音「來」
	祿: 盧谷切	來	
酌音耒	酌: 盧對切	來	「來」音「來」
	耒: 盧對切	來	

7. 半齒音: 「日」

《問奇集》直音에서 「日」母字가 있는 것은 27組이고 모두 「日」母字를 「日」母字로 주 달고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問奇集》注音	《廣韻》反切	聲類	備註
若音惹	若: 人者切	日	「日」音「日」
	惹: 人者切	日	
物音刃	物: 而振切	日	「日」音「日」
	刃: 而振切	日	
茹音如	茹: 人諸切	日	「日」音「日」
	如: 人諸切	日	

위에서 서술한 《問奇集》直音 상황을 근거로 분석하여, 필자는 聲母

19종류를 구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44):

發音部位	《問奇集》聲母	擬音
脣音	幫【並(일부仄)】 滂【並(平·일부仄)】 明	p p' m
	非【敷·奉】	f
舌音	端【定(일부仄)】 透【定(平·일부仄)】 泥【娘·疑(일부 開口三等字)】	t t' n
	精【從(일부仄)】 淸【從(平·일부仄)】 心【邪】	ts ts' s
	照【莊·床(仄)·知·澄 일부仄】 穿【初·床(平)·神(일부平)·禪(일부平)·徹·澄 (平·일부仄)】 審【疏·神(일부 平聲제외)·禪(일부 平聲제외)】	tsʰ ts' s
牙音	見【群(일부仄)】 溪【群(平·일부仄)】	k k'
	曉【匣】 喻【影·爲·微·疑(일부 開口三等字 제외)】	x ∅
半舌	來	l
半齒	日	z

IV. 結 論

《問奇集》은 明 萬曆년간에 활약하던 대학자 張位가 讀書人에게 참고가 되고자 저술한 小學 서적으로, 그 중에 나타난 언어자료들을 통해 당시의 언어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問奇集》의 작가고찰 및

44) 아래 표의 聲母는 《廣韻》41聲類로 표시하였으며, 【】안의 성모가 【】앞의 聲母에 합병됨을 표시한다. 擬音은 林慶勳·竺家寧의 《古音學入門》와 楊時逢의 <南昌音系>에 의거하였다

聲類의 분석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필자는 《問奇集》의 聲母를 19종류로 나누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脣音: 「幫」·「滂」·「明」·「非」
 舌音: 「端」·「透」·「泥」
 齒音: 「精」·「清」·「心」
 「照」·「穿」·「審」
 牙音: 「見」·「溪」
 喉音: 「曉」·「喻」
 半舌: 「來」
 半齒: 「日」

위에 나열한 《問奇集》聲母 19종류에서 반영된 聲母 특징은 모두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全濁音의 淸化

《問奇集》直音에서 全濁音이 들어있는 것은 모두 333組이며, 그 중 全濁音과 淸音이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는 것은 모두 74組로 약 22%를 차지한다.

2. 「影」·「爲」·「疑」·「微」가 聲母를 소실하고, 「喻」와 함께 零聲母가 되었다.

《問奇集》直音에서 「影」·「爲」·「疑」·「微」·「喻」가 있는 것은 모두 216組이며, 그 중 다섯 성모의 글자가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는 것은 32組로 약 15%를 차지한다.

3. 「知」系·「莊」系가 「照」系와 합병되었다.

《問奇集》直音에서 「知」系·「照」系·「莊」系의 글자가 있는 것은 모두 202組이며, 그 중 세 계통의 글자가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는 것은 27組로 약 13%를 차지한다. 이 세 계통의 성모가 합병되어 오늘날 國語 捲舌音의 근원이 된다.

4. 「敷」·「奉」두 성모가 「非」에 합병되었다.

《問奇集》直音에서 「非」·「敷」·「奉」세 聲母의 글자가 있는 것은 모두 48組이며, 그 중 세 聲母의 글자가 서로 음을 주 달고 있는 것은 6組로 약 13%를 차지한다.

5. 「娘」母가 「泥」母에 합병되었다.

6. 「疑」母의 일부 開口三等字가 「泥」母와 합병된 「n」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내용에서 《問奇集》은 明代北方官話의 聲母특징을 구현하고 있는 官話계통의 저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한 全濁聲母 「並」·「定」·「從」·「澄」·「群」의 일부 仄聲字가 次清音과 합병하는 현상에서 「鄉音土語」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明 張位, 《問奇集》, 《百部叢書集成·寶顏堂祕笈》18(臺北市: 藝文印書館, 1965) 「明萬曆繡水沈氏尙白齋刻寶顏堂祕笈本」
- 明 張位, 《問奇集》, 《續修四庫全書·經部·小學類》238(第一版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3) 「福建省圖書館藏明萬曆刻本」
- 明 張位, 《發音錄》, 《叢書集成續編》74.
- 明 張位, 《閒雲館別編》, 臺灣國立中央圖書館 소장 「明萬曆二十五年清源刊本」
- 明 張位, 《張洪陽文集》, 《皇明經世文編》25(臺南市: 國風出版社, 1964.12)
- 明 張位, 《張洪陽註解道德經》, 《道藏精華·玄宗內典》8(臺北市: 自由出版社, 1979.7)
- 明 張位, 《南華標略》, 臺灣國立中央圖書館 소장 「明萬曆間吳宗玄刊本」
- 宋 陳彭年, 《新校正切末本廣韻》(初版;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6.9)
- 宋 丁度, 《集韻》(初版; 臺北: 學海出版社, 1986.11)
- 金 韓道昭, 《校正五音集韻》(第一版; 北京: 中華書局, 1992.9)

- 明 李紹文,《皇明世說新語》,《明代傳記叢刊·學林類》(初版 臺北 明文書局, 1991.1)
- 《詞林典故》,《四庫全書存目叢書·史部》258(初版 臺北 莊嚴文化事業有限公司)「北京圖書館藏明萬曆十四年張位刻本」
- 《明史》(臺初版; 臺北: 國防研究所, 1963.4)
- 清 張廷玉 等,《明史列傳》,《明代傳記叢刊·綜錄類》(初版; 臺北: 明文書局, 1991.1)
- 清 陳田,《明史紀事》,《明代傳記叢刊·學林類》(初版 臺北 明文書局 1991.1)
- 清 朱竹垞,《靜志居詩話》,《明代傳記叢刊·學林類》(初版 臺北 明文書局, 1991.1)
- 《南昌縣志》,《中國方志叢書·華中地方》83(臺一本; 臺北: 成文出版社, 1989.3),「清乾隆十六年刊本」
- 王 力,《漢語史稿》(新版; 北京: 中華書局, 1980.6)
- 耿振生,《明清等韻學通論》(第一版; 北京: 語文出版社, 1992.9)
- 陳新雄,《新編中原音韻概要》(初版; 臺北縣: 學海出版社, 2001.5)
- 陳新雄,《古音學發微》(初版 臺北市 文史哲 1996.10)
- 陳新雄,《等韻述要》(初版 臺北市 藝文印書館 2002.11)
- 丁 鋒,《疏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第一版;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2)
- 吳傑儒,《異音別義之源起及其流變》(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碩士論文 1982.6)
- 周駿富輯,《明代傳記叢刊索引》(初版 臺北 明文書局 1991.10)
- 羅常培,《漢語方音研究小史》,《羅常培語言學論文選集》(臺一版 臺北 九思出版社, 1978.3)
- 丁邦新,《問奇集所記之明代方音》,《中央研究院成立五十周年紀念論文集》(1978.6)
- 楊時逢,《南昌音系》,《歷史語言研究所集刊》39 (1969.1)

崔玲愛, 《洪武正韻研究》(臺灣大學中國文學研究所博士論文, 1975.7)

林慶勳·竺家寧, 《古音學入門》(初版,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9.7)

王傳德, 《漢語史》(第1版, 濟南: 濟南出版社, 1996.4)

<中文提要>

本文以考明代《問奇集》一書之作者及其聲類之探索為主要內容。《問奇集》係明萬曆年間碩儒張位為了提供學生與讀書人參考的小學著作。在《問奇集》二卷篇幅中，囊括了作者的音韻概念與注音資料。書中張位以自己發出之同音字注音，每字下注音，以「某音某」·「某音某，又音某」·「某，某某聲」的直音形式注音，共有1,357條。此乃研究當時語音的一項重要資料，反映了語音變化之趨勢。

《問奇集》之價值已漸被學者所注意，如羅常培介紹張位所記之各地鄉音，丁邦新曾將張位所記之音進行具體的分析，吳傑儒則研究張位之文字學，然均僅限於文字與方言部分，而本文則着重於分析《問奇集》中語言資料，以了解書中反映的語言情況。筆者以宋代陳彭年等重修的《廣韻》41聲類來分析《問奇集》中所記之直音資料，斷定《問奇集》聲母為19類，分別為：「幫」·「滂」·「明」·「非」·「端」·「透」·「泥」·「精」·「清」·「心」·「照」·「穿」·「審」·「見」·「溪」·「曉」·「喻」·「來」·「日」等。觀察其所呈現之聲母特徵為：

1. 全濁音清化
2. 「影」·「爲」·「疑(除部分開口三等字外)」·「微」聲母消失，與「喻」母同為零聲母。
3. 「知」系·「莊」系與「照」系合併。
4. 「敷」·「奉」合於「非」。
5. 「娘」合於「泥」。
6. 「疑」母部分開口三等字呈現與「泥」相合之「n」。

由上述可知《問奇集》充分具備有明一代北方官話之特徵，是為反映官話

系統之著作，然在全濁聲母「並」·「定」·「從」·「澄」·「群」有部分仄聲與次清合流之跡象，亦顯示《問奇集》不免出現「鄉音土語」之弊。

주제어: 張位, 《問奇集》, 聲母系統, 聲母特徵

K C I